

Pre-conference Session

오페라에 빠지다

울산의대

박 주 현

Phantom of the opera는 뮤지컬일까? 오페라일까? 그러면 포기와 베쓰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즉, 보통인 우리들을 위해 감히 오페라에 관해 몇 자 적어 볼까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은 분야이다. 초등학교 때 배운 정의, 즉 종합예술이라는 것이 아는 것의 전부인 것 같지만 의외로 막연하게나마 어떤 그림을 머리에 그릴 수는 있다. 뮤지컬 같은 것 아닐까? 가수가 가발 쓰고 나와서 노래하고 조명, 의상, 무대, 연출이 있고 막이 내려간다. 아, 물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있고 뭐 그런 것 아닐까? 몇 만원 정도 하면 뮤지컬이고 10-20만원 정도 하면 오페라 아냐? 무대에 20대가 나오면 뮤지컬이고 40대가 나오면 오페라 아닌가? 생각해 보니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오페라는 약 400년 전쯤 이탈리아에서 시작 되었다. 르네상스 운동의 일환으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즉, 인간의 이야기를 노래와 연주, 대사와 무용으로 풀어보고자 시작 되었다. 따라서 순수 예술이기에 구원과 내면의 삶을 예찬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적 요소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물론 예술로 승화된 대사와 음악 하에서지만).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기에 사람이 몰렸으며 수많은 극장이 만들어졌다.

영화가 있기 이전 시절에는 오페라가 영화였다. 오페라의 연출은 영화와 별 반 다르지 않다. 유명한 영화감독이 또한 유명한 오페라 연출가이기도 하다. 올리비아 허세가 나왔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독한 Franco Zeffirelli는 전설적인 오페라 감독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화 속에 많은 오페라 장면이 등장한다. 영화 제5원소에서 우주의 디바가 나와 부르던 환상의 노래가 사실은 오페라 아리아이고, 지옥의 묵시록에서 헬기를 타고 캄보디아 해변 민간인을 공격하던 장면에서는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에서 발퀴레의 비행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물론 작전명 발퀴리라는 영화 역시 바그너의 오페라 발퀴레의 곡들이 여러 번 흘러 나오게 된다. 영화 아마테우스와 파리넬리 그리고 최근 개봉한 더 테너, 리리코 스펀토 에서는 수많은 오페라의 장면들이 나오기도 한다. 오페라를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을까?

오페라에서 대본은 음악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당대의 대 문호의 작품들이 오페라에 자주 등장한다. 햄릿, 맥베쓰, 파우스트, 베르테르 등이 한 번 이상씩 오페라로 다루어졌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오페라로 본다면 또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실제로 10여편 이상의 오페라가 만들어져 있다. 연극, 영화, 뮤지컬, 발레 모든 형태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대사와 연기가 음악에 떠올라 사랑하고 백하는 장면에서 오페라의 감동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

“줄리엣, 나의 입술은, 얼굴을 붉힌 순례자가 성지를 순례하듯, 성스러운 당신을 순례하고 싶습니다. 제 하찮은 손이 성스러운 당신의 손을 더럽혔다면 그 벌로써 내 입술이 닦게 하소서.”

유럽을 여행 하다가 보면 주로 성당, 궁전, 그리고 미술관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음악, 특히 오페라 여행을 곁들여야 한다. 밀라노에서 라 스칼라 극장을, 베니스에서 라 페니체 극장을 꼭 가보아야 한다. 여름 시즌에 밀라노에서 베니스에 가는 길에 베로나 에서 야외 원형극장(Arena di Verona)을 들리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무효인 것이다. 살쯔부르크, 비엔나, 파리, 드레스덴 등 오페라의 성지들은 너무도 많고 흥미롭고 감동적이다. 참고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조개껍질 건축물 외형을 감상하는 것이지 문화와 역사의 감동은 없는 것이다.

오페라에서 관객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놀랄 일은 오페라에서는 좋은 아리아가 끝나고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면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앙코르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관객이 야유를 하고 사과를 던지고 하면 공연이 중단되고 표를 환불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관객이 얼마나 신나는 주인공인지 경험하게 된다. 파바로티와 도밍고는 커튼 콜을 한 시간 이상씩 받은 적도 있다. 이때 관객은 잘했다, 죽인다, 최고다라는 뜻으로 브라보! 라고 외치게 되는데 낯설어 하지 말고 힘차게 개성 있는 스타일로 외쳐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이태리와 의 수교 130주년인가를 기

넘하여 스칼라 극장의 무대와 최고의 성악가가 출연하는 아이다 공연이 있었는데 수줍은 한국 관객들은 속으로만 와~하면서 암전
히 박수를 보내어서 필자가 벌떡 기립하여 브라~~~보!를 힘차게 외쳐대었다.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오페라를 즐기려면 오페라극장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곤란하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영상물로 거의 담지 않는
뮤지컬과는 달리 유명 오페라는 수 백 종이 DVD와 Bluray의 형태로 발매가 되어있다. 3~4만원 정도면 그 멋진 최고의 오페라를
감상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영화관에서 최고의 화질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상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시작한 후 익
숙해 진 오페라가 생기면 한 번은 오페라 공연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페라에 대한 이해와 오해 몇 가지를 적어 보았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페라가 매우 흥미롭고 매력 있는 예술이라는
점을 느꼈으면 한다. 최소한 익숙지 않은 현악 4중주를 듣기 위해 콘서트 홀에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오페라는
한번 좋아하게 되면 헤어날 수 없이 빠지게 된다. 젊은 날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